

<2010년 6월 14일 월요일 새벽 잠언>

1. 잠을 뺏기면 육이 피곤하지만, 새벽 시간에 잠자느라 기도 시간을 뺏기면 영이 피곤하고, 마음이 피곤하고, 삶도 피곤한 것이다.
2.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진행되고 있어도 모르면 순간 지나간다.
3.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한 시대가 가도 모르는 자에게는 순간 지나간다.
4. 깨어 근신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땅에서 인연을 맺어 영원까지 간다.
5. 새벽에 기도해도 나의 계시가 없다고 하며 그것만 바라보지 말아라. 먼저는 네 양심이 네 마음에 하는 소리를 들어라. 항상 기도할 때 자기 양심이 자기를 깨닫게 하고, 자기 마음이 자기를 깨닫게 한다. 이것도 자기를 유익케 하는 것으로서 산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고,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해 준다. 그러다가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고, 내가 깨닫게 해 준다. 이것이 연속되어 깊어지게 되면 내가 계시할 것을 계시해 준다.